

제주해녀 독도 주민으로 돌아왔다

김신열씨 남편 故 김성도씨와 1980년부터 거주 사별후 독도 떠난뒤 21개월만인 지난 19일 복귀 본보 2005년 '창간 16주년 특집' 현지 취재 보도

제주해녀 출신으로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신열(81)씨가 21개월 만에 독도로 다시 돌아왔다.

21일 울릉군에 따르면 김신열씨는 지난 2017년 11월 독도에서 나간 뒤 21개월 만인 이날 19일 독도에 들어갔다.

김신열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인 '독도 지킴이' 김성도씨가 숨지면서 경북 울진에 있는 큰 딸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제주도 한림읍 강구리 출신으로 20대 초반 새내기 해녀로 일감을 찾아 울릉도로 갔다 김성도씨를 만나 독도를 지켰다.

김씨는 지난 1980년부터 남편 김성도씨와 독도에 집을 지어 거주했고 1991년에는 호적까지 옮기는 등

남다른 독도사랑을 실천해왔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3년 태풍으로 직접 지은 어린 숙소가 망가지자 독도를 떠나 울릉도 사위 집으로 옮겼다가 2006년 숙소와 부대시설 등이 복구되자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울릉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예산을 포함해 15억원을 들여 독도 주민숙소를 고쳐 지었다.

김씨는 남편이 맡아온 독도 이장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이 독도 유일한 주민인 김씨를 이장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라일보는 지난 2005년 4월 창간 16주년 특집으로 제주가 고향인 김신열(당시 68세)씨를 취재해 '30년 독도지기는 바로 제주해녀'라



김신열(81·가운데)씨가 지난해 숨진 남편 김성도씨 사진이 걸려있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 주민숙소에서 딸, 사위, 외손자, 손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한라일보와 인터뷰에서는 "뱃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는 외부인과의 혼인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아 동생과 떨어졌고 동생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한라일보 취재진이 제주에서 온 성의를 생각해 허락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김씨는 당시 본보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제주출신 해녀 100여명과 함께 울릉도 바다 곳곳에서 물질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작업할 수 있는 바다가 제한되면서 수가 줄어 제주출신 해녀가 10명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위명석기자

사업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그동안 국공립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만 적용되던 국가회계시스템이 내년부터 모든 사업유치원에도 전면 도입된다.

제주교육지원은 21일 제주학생문화원 세미나실에서 제주도 관내 16개 사업유치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사업유치원 회계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히 사업유치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일부 사업유치원에 시범도입하고 내년에는 모든 사업유치원에 전면 도입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시스템' 사용방법 등 유치원 회계 전반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는 공립유치원 101개(제주시 62개, 서귀포시 39개) 외에 사업유치원 21개(제주시 16개, 서귀포시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유치원 중 원아수 200명 이상 9개 유치원과 200명 미만이지만 희망하는 2개 유치원을 포함해 총 11개 사업유치원에 에듀파인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나머지 사업유치원 10개에도 에듀파인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모유 먹고 자란 우리 아기 건강하죠?"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에서 주최한 제2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렸다. 이상국 수습기자

지게차 몰다 사망사고 지법, 30대에 금고 6월

적재 가능 무게를 초과해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낮 12시 25분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가구업체 주차장에서 트럭에 실린 2.8t 무게의 합판 1묶음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게차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쏟아지면서 작업을 돌던 서모(52)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가 운전한 지게차는 최대중량이 2.5t인 것으로 나타났고 높이도 1.3~1.4m에 달해 당시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난항

사업 예정 부지 논란 계속 지방재정심의서도 '재검토'

도내 3만여 제주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숙원인 제주도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부지 적정성 문제로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지만, 10년째 사업부지 문제로 계속 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지구(면적 1364㎡)에 건립키로 협의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광복회·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계획이다. 예산은 149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업예정지에 대한 이견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열고 보훈회관 건립 사업을

심의했지만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사업 예정 부지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접근성 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최근 옛 중앙병원 인근 부지에 설립하는 계획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부지 매입가에 대한 땅 소유주와의 이견으로 협의가 결렬됐다.

결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지구 내 건립계획을 토대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았지만 문턱을 넘진 못했다.

이로 인해 2021년 착공 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올해 말까지 내년 제주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시켜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어려워졌다. 제주도 보훈청 관계자는 "지난 3~4년 동안 30여 곳의 부지를 물색했지만 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화북동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성평등 교육 허브 교육센터 '밈그림' 나왔다

도, 21일 계획안 공개 2021년 교육장 확보

제주지역 성평등 교육과 인식 확산의 허브 역할을 맡을 가정 제주성평등교육센터의 밈그림이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가정 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치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운영 주체를 선정할 후 2021년 교육장을 확보하는 등 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과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센터는 '제주지역 성평등 교육·의식 확산의 중심'을 비전으로 ▷성평등을 위한 지역 특성화 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기관 및 강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과 인력은 센터 업무를 총괄

할 센터장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맡을 교육기획팀(팀장 1명·연구원 3명), 교육과정팀(팀장 1명·연구원 2명) 등으로 계획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성인지정책과정 ▷폭력예방교육과정 ▷도민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정 ▷전문가 과정 ▷온라인교육과정 등으로 꾸며지며, 교육대상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종사자, 지역리더, 도민 등으로 구분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상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외협력본부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교육 사업을 완성도 높게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성평등 전문지식과 성평등 교육기획, 운영의 전문성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탄탄한 조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은 "센터 추진 방향 모색은 제주지역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정책 추진체계의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정을 비롯한 각 영역의 역할 구분과 협업체계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진기자

불꽃처럼 살다간 독립운동가 강평국 선생님의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를 경축합니다.



강 평 국(1900~1933)

“나라에 봉사하는 길은 여성도 공부하는 길이다. 여자라고 반드시 남성들에게 뒤지란 법은 없다.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동등해야 한다. 공부하다 졸음이 오면 대한 독립 만세를 불러라.”

1900년 제주시 일도리에서 아버지 강두훈(姜斗勳), 어머니 홍소사(洪素史) 사이에서 태어남. 본명 강연국(姜年國), 세례명 아가다.
 1914년 신성여학교 1회 졸업.
 1919년 3·1 만세운동 참여, 경성여고보 졸업.
 1920년 진도공립보통학교 교사 부임(제주 첫 여성 교사)
 1920년 최정숙과 함께 '여수원' 개설해 여성 문명 퇴화와 교육 보급에 힘씀.
 1925년 최정숙·고수선 등과 '제주여자청년회' 조직, 여성 의식 향상과 권익 보호에 앞장섬.
 1926년 도쿄여자학전문학교 유학.
 1927년 도쿄조선여자청년동맹 초대 집행위원장 및 신간회(新幹會) 동경지회 부인부 책임자.
 1928년 근우회 일본지부 창설해 도쿄지회 의장단으로 활약.
 1933년 귀향. 광주에서의 비밀 결사 발각돼 일본에 의해 강제 구인되었다가 지방 악화로 33세에 요절.

※ 신성여학교 1회 고수선(1990. 건국훈장 애족장), 최정숙(1993. 대통령 표창), 강평국(2019. 8. 15. 건국훈장 애족장)

신성학원총동문회 회장 현희순 외 동문 일동
최정숙기념사업단 단장 오순덕 외 이사 일동